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1독서: 다니 7, 13-14

제2독서: 묵시 1, 5, 6-8

복음: 요한 18, 33b-37

순정이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요한 18, 37)

강론

복되여라,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들!

법선배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또 다시 전례력으로 보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성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성서주간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표시의 하나로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또한 그리스도 삶과 같아지도록,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항상 애를 쓰며, 특별히 한 주간을 성서주간으로 정한 것은 좀더 성서말씀을 맛들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말씀을 알도록 성서를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이미 예로니모 성인은 이에 관해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바울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권능이시고 하느님의 지혜이시라면 성서를 모르는 이는 하느님의 권능도, 그분의 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읽고 들어서 알게 된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만 새겨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할 때 말씀을 제대로 알고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오늘의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참된 행복을 바로 이곳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작은 기쁨 이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지켜 복된 사람이 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됩니다!"(루가 11, 28; 묵시 1, 3 참조)

소리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서

미(美) 중간선거관계가 시중의 화제다.

민주당이 왜 졌으며 공화당이 어떻게 해서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상(上)·하(下) 양원을 장악했을까? 보다는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

미국 남부지역의 공화당 지지 문제다. 남부지역은 1861~1865년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던 이유로 지난 130년 가까이 공화당을 기피해왔다.

이런 성향은 남부지역이 민주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공화당이 싫어서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 결과 남부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진보성향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감정보다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무튼 이번 공화당의 대약진은 주로 남부에서의 성과로 평가된다.

정통 정당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선거사에서도 지역감정에 따른 유권자 표의 향방은 매우 뚜렷했다. 지역 출신 인사에 표를 모아주었고 사투리 언어가 뒤범벅되어 지역 구분이 안되는 수도권 유권자의 움직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됐다.

수없이 바뀐 당명이나 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푸대접, 무대접,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종 색깔의 바람이 불고 급기야는 '싸쌈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라는 개념은 미국 남부지역이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화당이 싫어서라는 애기와 일맥상통한다.

농업지역이라는 특성상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남부지역이 왜 진보를 택해왔는지 우리의 위정자도 생각해 볼직하다. 

순정이 산책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자.

제10회 성서주간 담화문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 온 가족이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시다 —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국제연합과 더불어 금년을 '가정의 해'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간 이념 대립상황의 해소와 함께 인류의 생존과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핵무기 못지 않은 파괴력으로 우리의 삶을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온갖 현상들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전통적 가치관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가며, 온갖 비인간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은 우리가 요즈음 매일이다시피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뿌리를 찾아내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망가진 가정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모습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서가 말해 주는 진리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한 존재이고, 부부의 인연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며, 자녀는 그분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모든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앞에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요한 17,6).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마태오 12,50)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지칭하기 위해 쓰는 말마디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옮겨 쓰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부모 등 좁은 의미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사람들도 "본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얼마 동안 내게 맡겨 주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를 두고도 "제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 참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향한 여행길을 돕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의 참다운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느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참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잊은 채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는 일체의 노력은, 하느님을 잊혀 두고 사람들끼리 일치를 이루려다 실패한 바벨탑 설화에서처럼 가망없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망각하면 누구도 참다운 부모나 자식 또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으로부터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 때에만, 사람들은 참다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형제로 알아볼 눈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는 쉽게 갈라서고 부모 자식 사이도 비뚤어지며, 다른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화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임상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토타리
☎78-1312~3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뇨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종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복은행 앞

☎225-3858

사람들을 이른바 무한경쟁 시대의 적수나 자기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런 길로 빠져드는 지를 보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부패해 가는 사회의 방부제로서 사명을 띠고 세상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가르치심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일을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를 함께 봉독하고 나누며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길 때,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닦고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 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네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신명기 6,6-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 병 호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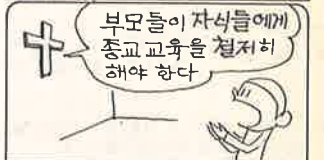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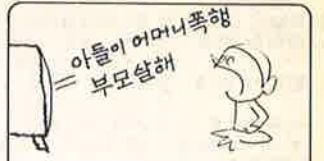
교 구 소 식

※ 성가정 성공사례, 신앙체험수기, 선교체험 수기 공모: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마감-11월21일, 주최-전주교구 평협, 문의 (0652) 85-2935

1. 사제 사목교서 연수: 11월22일(화) 오전10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2. 천호 피정 안내: 11월26일~27일, 주제-그리스도인의 미래(영원한 것들), 강사-조광호 신부, 문의 73-6600
3. 예비신학생 모임: 11월27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4. 혼인강좌: 11월27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 10,000원
5. 빈첸시오회 하반기 피정: 11월26일~27일 오후4시 나바위 피정의 집
6. 로사리오회 정기총회: 11월27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7. 교도사목 사무실 개설(☎ 88-9143) 사무실 비품 기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교도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1월21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9. 레지오 마리아 단원교육: 11월28일(월) 오후7시 시기동 성당, 강사-김봉희 신부, 고흥석<시기동 Co에서는 Co산하 전단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0.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1월25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11. 주부대학: 11월26일(토) 오전10시 주제-여성과 법률, 강사-허영만 교수(전북대 행정대학원장)
12. 종교음악 연구회 교육: 11월21일(월)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13. 우리농촌 살리기 도·농 잔치마당: 12월2일~4일 전동 성당, 주최-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협의회

※ 축! 영명: 23일(성골레멘스) 윤양호 신부님

요심이 (1108) 김병오



사무장 구함

1. 자격: ①영세한 지 3년 이상 (남) ②운전면허 소지자 ③전문대 이상 졸업자 2. 제출서류: ①이력서(연락처 명기) 사진부착 ②세배증명서 ③본당신부님 추천서 ④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서류접수 및 문의: 평화동 천주교회 (83-8245)

감사드립니다.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 성전 봉헌식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축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산 천주교회

저동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 주 장(이나시오)

차 숙(글라라)

코아전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제9기 '95학년도 원아모집 새나라종합학원

장 동 철(아오스딩)

김 은 숙(까리따스)

서신동 우신APT 입구

☎ 72-8415, 8465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효 자(삼천왕궁APT 앞) 221-8331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량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서주간)
1. 반희장 경질: 기린봉 2반 이정희(루시아)→송명옥(에우제니아) 수고하셨습니다.
 2. 반미사 안내: 동진 2반-24일 전 11시
남노 3반-25일 후 3시
 3. 사제연수회: 22일 전 10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 어머니미사는 없고 새벽미사가 있음
 4. 연도의 날: 23~25일 저녁미사 후, 애령분과 주도
* 새 연도책 지참바람
 5. 본당 물청소: 22일 전 10시30분(청소도우 지참)
 6. 유아 세례: 26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
 7. 모임: ①대건회(20일 장엄미사 후)
②빈첸시오회(24일 전 10시30분)
③꾸리아(27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8. 다음주(27일)부터는 판공이 시작됩니다. 금년도 교무금 완납과
신년도 교무금을 신입하시고 성사표를 가져다 보시기 바랍니다.
 9. 감사헌금: 중노 1반 김모니카 십만원, 감사합니다.
 10. 금주 청소: 중노 3, 4반
차주 청소: 중노 8, 9반
- 지난주 봉헌금: 1,022,420원 □ 2차헌금: 412,150원
□ 교무금: 1,638,75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서주간)
1. 반장회: 11월2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변경: 11월19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6시,
일요일 저녁 6시, 평일 저녁 6시
 3. 성모회: 11월2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95년도 각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접수바람.
금주 전례: 해설-이동재(베네딕도)
독서①김인수(그레고리오)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종호(프란치스코)
독서-하성만(시몬) 송정옥(로사)
- 지난주 봉헌금: 940,050원 □ 교무금: 752,000원
□ 2차헌금: 386,95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보좌신부 86-3032 수 너 원 86-3454 보좌신부 장 삼 호
사목회장 황 길 평

- ◎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성령쇄신룩상회, 견진성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축하합니다: 견진받으신 90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성신을 받고 하느님의 사도가 되신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을
주님게서 거대하고 계십니다.
1. 성무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병자 봉성체: 25일(금) 오후 2시
 3. ME 가족모임: 25일(금) 오후 7시30분
 4. 유아 세례: 26일(토) 오후 6시30분
 5. 빈첸시오회: 26일(토) 오전 10시
 6. 대림절 성서 특강: 요한 묵시록에 대해 장상호 보좌신부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7. 성당 청소: 26일(토)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유복규 가족
- 지난주 봉헌금: 724,500원 □ 교무금: 862,700원
□ 감사헌금: 100,000원 □ 평신도주일 2차헌금: 301,95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 ◎ 11월은 위령성월(그리스도 왕 대축일)
1. 금주: ①바나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2. 성화회: 21일(월) 오후 6시
 3. 성지회: 25일(금) 오후 8시
 4. 차주: ①혼인강좌-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②차량축복식-공식미사 후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5. 예비자 교리반 안내
일요일(오전 9시)-일반, 화요일(오후 8시)-젊은이
수요일(오전 10시)-주부, 노인, 목요일(오후 8시)-직장인
금요일(오후 6시)-일반, 토요일(오후 4시)-중·고등부
 6. 각 단체 95년도 사업계획서를 사목회에 제출바랍니다.
 7. 사목회 사회복지분과 불우이웃들이 들끓바자회 출품바랍니다.
품명-의류, 가전제품(사용 가능), 기타 바자회에 기증할 만한
물품, 교우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92,03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선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1. 나운동 성당 돌기 2차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울트라아-26일(토) 저녁 7시 ②성모회-다음주일
3. 성령세미나: 21일(월)~26일(토) 저녁 7시~10시,
회비-2,000원
4.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다음주일
5. 축! 혼인: 신랑-양기춘(프란치스코)군, 신부-조영란 양
27일(일) 12시30분 덕진 성당
6. 다음주일은 대림 제1주일(다해 시작)입니다.
7. 성탄절 불우이웃돕기 성미 봉헌: 뜻있는 모든 분들
8. 유아 영세: 27일(일) 오전 9시30분
9. 금주 청소: 성실하신 동정녀Pr
10. 차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11. 금주 전례: 해설-김영진, 독서①최경림 ②이순자
봉헌-최경림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봉헌-성대직씨 부부

· 칠성사
신품성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의 구원사업을 계속하는 사제들을 교
회의 권위로 축성하는 성사
병자성사: 죽을 위험에 처한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는 성사
□ 지난주 봉헌금: 343,200원 □ 2차헌금: 135,800원
□ 교무금: 169,00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 너 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 후
사 무 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 상 근

- ◎ 가족과 함께하는 성서주간: 온 가족이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
고, 듣고, 나눔시다.
1. 사목회 임원 개편: 회장-강상근, 부회장-함문권, 임병구, 선
교-김대현, 전례-최병남, 재정-윤영이, 교육-박항규, 홍보-오무관, 청소년-이장수, 사회복지-류덕진, 애령-최덕
남, 구역-정승자, 여성-주경순
 2. 축! 꾸리아 간부교육 수료: 김대현, 설갑순, 이영순, 이경라,
김윤호, 전숙자 4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병자 봉성체: 25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4. 빈첸시오 하반기 피정: 26-27일 나바위, 회비-본인 3천원
 5. 가정 방문: 24일 전9-1 후9-2 25일 후9-3
 6. 폐우 수집의 날: 22일 각 반별로 한 통 이상 수집 봉헌
 7. 회의: 임마누엘-오늘 공식미사 후 삼천동 성당, 성소 후원의
날-오늘 매 미사 후 회비 납부 회의-공식미사 후,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23일
어머니미사 후, 울트라아, 몽송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8. 전집을 환영합니다: 코오롱-신동철(아오스당) 7동1302호 ☎
223-4232 이정수(요셉) 3동1202호 ☎224-8634 황용운(마태
오) 3동504호 ☎224-9072 오순숙(루시아) 7동1104호 ☎222-
3141 12-1반 김요철(분도) ☎83-7717 1-1반 임영숙(안나)
☎84-3498 9. 축복미사: 22일 저녁 8시 임맹환 덕 코오롱 9동
204호 ※ 축! 개업: 온천 돌담길 김스테파노 정제지나 감사헌금
5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220,320원 □ 교무금: 855,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전동 교육관, 요한복음 강의